

기다림에 대한 생각

김 일 명

《기다리는것만큼 안타까운게 없는것 같구나. 기다리는것도 고생이란 말이 있지.》

이것은 공장에서 밤늦게야 들어오군 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어머니가 종종 꺼내는 입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침일찍 출근했고 밤이 깊어서야 퇴근하군 하셨다.

공장에서 고급기능공으로 손꼽히는 아버지의 손길은 새벽과 야밤을 가리지 않았고 그만큼 아버지는 집보다 공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것이다.

아버지는 새해를 맞게 되는 설달그믐날에도 밤늦도록 공장에서 일했고 익살쟁이형님의 표현에 의하면 20분전 2019년에야 겨우 당위원장동지의 손에 꼭 붙잡혀 집에 들어왔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본척도 안하고 당위원장동지에게만 야단을 쳤다.

《위원장동지가 좀 애아버지에게 말해주십시오.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이 오죽이나 애라겠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어쨌든 난 평생 기다리며 살 팔자다. 고생줄에 들었지.》 하며 웃고말았는데 그 순간 아버지도 당위원장동지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고말았었다.

당장 우실것 같던 어머니가 웃다니? 난 그때 그 웃음의 의미를 다는 몰랐었다. 아니, 어머니가 그토록 즐겨쓰곤 하는 기다리는게 고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 몰랐었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그로부터 한주일후, 정확히는 한주일하고 이틀밤 더 자고난 후 나는 기다리는게 고생이라는 말의 참뜻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였다. 그런데 저녁늦도록 아버지는 여전히 들어오실줄 몰랐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말로 성을 내는것 같았다.

《그만큼 생일, 생일 못박히도록 곱씹어주었는데...》

나도 섭섭한 마음이 은근히 스며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막내아들은 아버지아들이고 그중에서도 중학시절의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들의 가슴에 제일 사랑스럽게 남는다고들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했다.

《일명이가 아버지길 기다려요.》

어머니는 이 한마디를 하고 아무말없이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얼마후 어머니가 송수화기를 놓았을 때에는 입가에 미소가 어려있었다.

《어머니!》

나는 묻는듯 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음을 담은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내게 아버지의 말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퍼그나 갈려있었다.

《아버지도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있다.》

《예?》

《너도 알고있지. 우리 원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지 않니. 글썽어제는... 어제는...》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다음말이 무엇이였는지 안다.

지금 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속에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것이였다.

《기다리는것만큼 안타까운게 없고 고생스러운게 없다지만 이 어머니 다르게 생각한다. 기다리는것만큼... 행복한게 또 어디 있겠니?》

어머니의 눈가에, 그 웃음 어렸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있었다.

기다리는것만큼 행복한것이 없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한번 꼭 잡으며 그 말을 새겨보았다.

아버지를 기다리는게 안타깝고 속타지만 그만큼 공장의 미더운 역군이라는 긍지감, 공장사람들의 사랑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였다는 기쁨으로 어머니는 행복속에 아버지를 기다리곤 한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모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경탄하고 칭송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속에 원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기다리는것 아니라.

숫구치는 정에 기다리고 안타까운 그리움에 기다리며 한없는 긍지안고 기다리는 우리 인민이라고 어머니는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행복이라고 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여주었다.

금지과 함께 깃드는 안타까움, 그리움... 이것이 기다리는게 행복이라는 말의 참뜻은 아니겠는지.

어머니는 어째서 기다리면서도 남몰래 웃음짓곤 하셨는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째서 밤새워 기대를 돌리며 먼 밤하늘을 바라보곤 하였는지 나는 그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언제나 행복속에 사는 인민.

그속에는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있는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방긋 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머니, 기다리는게 행복이라지요. 나도 밤새워 공부를 하며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원수님을 만나뵈울 날을 기다리겠어요.》

어머니의 입가에서 미소가 피어오르며 버릇처럼 되어버린 그 말이 또 튀어나올번 하였다.

《그래, 기다리는게 우리들에게 행복이구말구...》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 학생)